

## 노인복지관 발전 방향 탐구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따른 분석 -

유 성 호\*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였고 평균수명도 남녀 공히 70세(평균: 74.9, 남: 71.0, 여: 78.6)를 넘어(보건복지부, 2000) 우리 사회도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로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부양의식을 오늘날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 노인들은 과거 선대에 살았던 노인들보다 의식이 개화되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다양해진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를 가족보다는 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3.2%로 증가되고, 평균수명은 78.1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어(보건복지부, 2000) 80세 이상 고령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중풍이나 치매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 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과거의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향상된 노인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가활동 중심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 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시설보호에서 정상화(Normalization) 복지이념을 강조하는 지역사회복지로 전환되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강조되어(유성호 외, 2000),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89년 우리 나라 최초로 서울에 중부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노인복지관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9년 현재 전국에 110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3까지 150개의 노인복지관이 확충될 전망이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용노인 규모는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박재간 외, 1998).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정경희 외(1998)의 연구 결과 조사된 노인복지관 이용 비율인 2.3%를 적용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10만명 정도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생각보다 소수의 노인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더라도 그 규모는 노인 인구의 5.0%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13.7%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Krout et al., 1990) 그 규모는 작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설립될 전망이어서 행정상 노인들의 복지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1998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경로당,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되었으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노인복지법 36조). 이러한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노인복지관을 저소득층 노인 중심에서 일반노인을 포함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다목적 노인센터(Multipurpose Senior Center)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여가, 보건, 상담, 식사 제공, 사회적 교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노인복지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학자들에 의해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김범수·김통원, 1997; 나상희·구재관, 1998; 박재간 외, 1998; 박재간·원영희, 1997; 원영희·모선희, 1998; 이명자, 1999; 임춘식, 1997). 이들 연구들은 주로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램의 종류와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노인복지관 운영책임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복지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구미지역의 연구들은 노인복지관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와 함께 노인복지관의 이용여부, 이용빈도 및 이용기간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복지관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더 자주 이용하고 덜 이용하는지 또한 누가 장기간 이용하고 단기간 이용하고 그만두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에 매우 중대한 기초 자료가 된다. 노인복지관을 자주, 장기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자주 이용하지 않는 노인과 중도에 이용을 그만두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여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발굴함으로써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보잘것없는 노인복지예산(1999년도의 경우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0.24%)을 이용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향후 노인복지관 발전에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의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가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 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에 따른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기간에 따른 특성을 조사한다.

셋째, 위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노인복지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용어 정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상 공식적 명칭은 노인복지회관이지만 현재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같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동일한 뜻으로 노인복지관을 사용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에 따른 노인의 특성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노인복지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Demko, 1979; Ferraro & Cobb, 1987; Krout, 1988, 1991; Miner et al., 1993). 그러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곳 또는 소수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에 따른 노인들에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구자들이 종속변수인 이용빈도를 측정할 때 일정한 방법보다는 연구자마다 주관적으로 상이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Miner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3)에서 이용빈도를 자주(frequently), 가끔(sometimes), 거의 이용하지 않음(rarely)으로 분류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자주 이용하는 것인지, 보통 이용하는 것인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Krout(1991)는 그의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이용빈도를 매일 이용하는 집단, 1주일에 몇 번 이용하는 집단, 1주일에 1회 이용하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노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Demko(1979)는 1주일에 3회 이상 참여하는 집단(high)과 3개월 동안 1회 참여한 집단(low)으로 2분류하여 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문제는 종속변수인 이용빈도를 측정하는 획일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모든 연구에 적용된다면 연구 결과의 불일치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에 관한 연구에 자주 사용된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소득, 거주형태와 건강상태, 접근성 문제, 자녀·친구와의 접촉과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교류이다.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은 결과

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연령은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Demko, 1979; Krout, 1988, 1991). Miner와 그의 동료(1993)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이용빈도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지만(Demko, 1979; Krout, 1991; Miner et al., 1993), Krout(1988)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er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3) 결과는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교육수준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Demko(1979)의 연구는 두 변인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또한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Miner와 그의 동료(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rout의 연구(1988)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Demko(1979)의 연구에서 소득은 이용빈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거주형태 역시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Demko(1979)와 Krout(1988)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주거형태만이 노인복지관의 이용빈도(자주 vs. 가끔)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주거형태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Miner et al., 1993).

## 2) 건강상태

건강상태 역시 연구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Krout(1988)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Ferraro와 Cobb의 연구(1987) 결과는 반대로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Ferraro와 Cobb(1987)은 건강이 나쁜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는 설명하고 있다. Krout(1991)와 Miner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3)에서는 건강상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접근성

접근성 문제를 독립변수로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Krout(1991)의 연구는 노인복지관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사회적 교류

사회적 교류와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빈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 또한 일반화시키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Miner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3)에서는 친척, 친구, 교회 참석,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교류가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rout(1991)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와의 교류는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는 비례하지만 자녀와의 교류와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Demko의 연구(1979)에서는 친구 및 친척과의 교류와 이용빈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에 따른 노인의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기간과 관련 있는 변수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Krout(1988)는 나이가 많고, 소득이 많고, 건강할수록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Demko의 연구(1979)에서는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rout(1991)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기간과 관계되는 유의미한 변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1999년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316명의 천안시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이명자의 연구(1999)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원자료는 1999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천안시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 노인이 직접 표기하거나 면접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이용회원은 1999년 3월말 현재 등록회원은 3,232명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40명으로 상당수의 노인이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으로 등록만 하고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도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천안시는 1995년 5월 시·군 통합으로 도농복합형 중소도시로 14개 동과 12개 읍·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천안시 인구는 38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631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14개 동 지역에 52%, 12개 읍·면 지역에 48%가 거주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경로당 430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유료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인학교 3개소가 있다.

이용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비는 없으나 점심식사와 이·미용실의 이용료는 생활보호노인은 무료, 일반노인은 약간의 실비를 부담한다.

## 2. 분석 방법

3가지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기술분석으로 노인복지관의 이용빈도 및 이용기간과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수의 척도유형에 따라 카이제곱과 t-test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그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는 주 5회 이상, 즉 거의 매일 이용하는 노인과 일주일에 1회 이하 이용하는 노인으로 2분류하여 노인복지관의 이용빈도를 결정하는 예측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이용기간은 1년 이하와 4년 이상으로 2분류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 3. 연구변수 및 측정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 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이기 때문에(secondary data analysis),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주요 결정변수(predictors) 전부를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변수를 척도화시킬 수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월용돈, 거주형태, 교육수준이 포함되고, 접근성은 복지관 이용시 교통수단이 이용되었다. 이 외 건강상태와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사회적 교류(친구, 자녀, 자원봉사활동)는

원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통계처리를 위하여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종속변수

다중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노인복지관 이용빈도는 응답자에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횟수를 주단위로 서열화하여 주 1회 이하, 주 2회, .....주 5회 이상으로 5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비율변수처럼 사용하였다.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은 6개월 미만 1,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3, .....4년 이상을 6으로 분류한 서열변수를 비율변수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과 가끔 이용하는 노인,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는 노인과 단기간 이용하는 노인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2분화하였다. 이용빈도의 경우 주 5회 이상(=1), 즉 거의 매일 이용하는 노인과 일주일에 1회 이하(=0) 이용하는 노인으로 분류하였고, 이용기간은 1년 이하(=0)와 4년 이상(=1)으로 분류하였다.

### 2) 독립변수

기술분석,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성별: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부호화 하였다.
- (2)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낮아 무학 1, 초등학교(중퇴/졸업) 2, 중학교 이상을 3으로 서열화하였다.
- (3) 건강상태: 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이용하였다. 건강하지 않음 1, 보통 2, 건강함을 3으로 서열화하여 부호화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 (4) 연령: 면접당시 응답자의 연령을 이용하였다.
- (5) 거주형태: 혼자 사는 노인을 1, 그 외의 거주형태를 0으로 부호화 하였다.
- (6)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거의 없어서 만족(매우 만족 포함)을 1, 보통 이하를 0으로 무의미 부호를 이용하였다.
- (7) 교통수단: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도보가 가능하거나 복지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 1,



그 외 버스, 자가용,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0으로 부호화 하였다.

(8) 월용돈: 거의 없음 1, 5만원 이하 2, 5만원 단위로 서열화하여 6까지 부호화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9%로 남성보다 약 2.2배 많았다. 연령분포는 70대가 가장 많은 62.3%를 차지했고 60대와 80대 이상이 각각 22.2%, 15.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42.4%가 결혼한 아들과 동거하고 있었고, 배우자와 둘이서만 사는 노인은 27.5%, 혼자 사는 노인은 19.6% 순이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학력이 2.2%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4.1%보다는 낮았으나(정경희 외, 1998)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노인의 학력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약 30%를 차지하였고,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약 50%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각각 약 25%, 60%와 비교하여(정경희 외, 1998) 약간 양호한 편이었다.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월평균 용돈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 전체 노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약 94%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박재간과 원영희(1997)의 82.8%, 김범수와 김통원(1997)의 76.9%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가운데 가장 많은 38.9%가 노인복지관을 도보로 이용하고 있었고,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이 29.7%,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22.8%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상당 부분이 복지관 이용 시 교통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유성호, 1999 참고).

표 1. 응답자(65세 이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n=316)

변 수	n	%	
성별	남성	98	31.0
	여성	218	69.0
연령	65-69	70	22.2
	70-79	197	62.3
	80세 이상	49	15.5
거주형태	혼자	62	19.6
	배우자와 둘이서	87	27.5
	결혼한 아들과 동거	134	42.4
	결혼한 딸과 동거	14	4.4
	미혼자녀(들)와 동거	17	5.4
	이외 다른 사람과 동거	2	0.6
교육수준	무학	109	34.5
	초등학교(중퇴/졸업)	141	44.6
	중학교(중퇴/졸업)	36	11.4
	고등학교(중퇴/졸업)	23	7.3
	대학이상	7	2.2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함	20	6.3
	건강하지 못함	139	44.3
	보통	65	20.6
	건강함	65	20.6
	매우 건강함	27	8.5
월평균 용돈	거의 없음	20	6.3
	50,000원 이하	79	25.0
	50,000원-100,000원 이하	107	33.9
	100,000원-150,000원 이하	46	14.6
	150,000원-200,000원 이하	33	10.4
	그 이상	31	9.8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0.3
	불만족	2	0.6
	보통	16	5.1
	만족	124	39.2
	매우 만족	173	54.7
교통수단	걸어서	123	38.9
	버스	85	26.9
	택시	9	2.8
	개인 자동차	15	4.7
	복지관 버스	72	22.8
	기타	12	3.8

2.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에 따른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인복지관 이용과 관계 있는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노인(1주 5일 이상)과 1주에 1회 이하의 가끔 이용하는 노인간 변수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과 t-tes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표 3). 마지막으로 복지관을 자주(1주에 5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과 가끔(1주에 1회 이하) 이용하는 노인간의 특성, 즉 이용빈도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표 4).

표 2. 노인복지관 이용빈도를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stepwise) 결과

독립변수	전체(N=316)	여성(N=218)	남성(N=98)
	Beta	Beta	Beta
성별(남성 = 1)	.127**	-	-
연령	.000	-.003	.033
거주형태(혼자=1)	-.076	-.078	-.069
교육수준	.247***	.203***	.264***
건강상태	.109**	.180***	-.051
월평균 용돈	.082	.023	.207**
복지관 이용 만족도(만족=1)	.066	.055	.069
교통수단(도보/복지관 차량=1)	.100	.106	.102
R <sup>2</sup>	.124	.088	.137

\*\*\* p ≤ .01, \*\* p ≤ .05

표 2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남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관 이용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나(31% vs. 69%) 이용빈도에 있어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노인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별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의미하지 않았던 월평균 용돈이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에게만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에게 있어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노인복지관 이용을 설명해 주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여성 노인일수록 복지관을 자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용돈이 많을수록 노인복지관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남성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는 사회적 교류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더라도 동년배와 함께 점심 식사나 다른 사회적 교류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노인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노인일수록 복지관을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연령, 거주형태, 복지관 이용 만족도와 교통수단은 노인복지관 이용을 설명하는 변수가 아니었으며, 남녀 노인 모두에게 노인복지관 이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는 교육수준이었다.

표 3.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에 따른 노인집단의 비교(괄호 안은 비율)

변수	주 1회 이하 노인 (N=99)	주 5회 이상 노인 (N=78)	n	Chi-Square	t값
성별				17.469**	
남성	17(.32)	36(.68)	53		
여성	82(.66)	42(.34)	124		
연령(평균)	74.70	73.85			-1.079
거주형태				4.865**	
혼자	26(.72)	10(.28)	36		
그 외	73(.52)	68(.48)	141		
교육수준				28.867***	
무학	55(.77)	16(.23)	71		
초등학교	36(.50)	36(.50)	72		
중학교 이상	8(.24)	26(.76)	34		
건강상태				10.110***	
건강하지 않음	58(.68)	27(.32)	85		
보통	15(.43)	20(.57)	35		
건강함	26(.46)	31(.54)	57		
월평균 용돈				21.362***	
거의 없음	15(.94)	1(.06)	16		
50,000원 이하	27(.68)	13(.32)	40		
50,001원-100,000원 이하	31(.52)	29(.48)	60		
100,001원-150,000원 이하	12(.43)	16(.57)	28		
150,001원-200,000원 이하	4(.24)	13(.76)	17		
그 이상	10(.63)	6(.67)	16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1)				.147	
보통 이하	5(.63)	3(.37)	8		
만족	94(.56)	75(.44)	169		
교통수단				.049	
도보/복지관 차량 이용	67(.55)	54(.45)	121		
대중교통 및 기타 이용	32(.57)	24(.43)	56		

\*\*\*  $p \leq .01$ , \*\*  $p \leq .05$

1) 2개의 셀(cell)이 기대도수가 5보다 작아 카이제곱 이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표 3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주 5회 이상)과 가끔 이용하는 노인(주 1회 이하)으로 2분류하여 집단간 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거주형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월평균 용돈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 끼리만 살거나 그 외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발견은 월평균 용돈이 20만원 보다 많은 노인의 경우 오히려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월평균 용돈이 적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노인이 많았고 10만원을 기점으로 반전하여 20만원 이하의 노인은 월평균 용돈이 증가할수록 자주 복지관을 이용하였으나 20만원을 초과하면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곡선). 이러한 발견은 아마도 월평균 용돈이 20만원 보다 많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노인들의 경우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것 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다른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준이 매우 높은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인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노인과 자주 이용하는 노인을 결정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4), 표 3에서 두 집단간 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냈던 거주형태, 건강상태 및 월평균 용돈이 주요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즉 노인복지관을 1주 5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노인을 결정하는 변인은 성별과 교육수준이었다. 즉 남성노인이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복지관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건강상태만이 주요 변인에서 제외되었다(표 2). 남녀노인을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도 다중회귀분석과 거의 동일하여 여성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복지관을 거의 매일 이용하였고, 남성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관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용돈  $p \leq .1$ ).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노인복지관을 가끔 이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노인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교육수준과 성별이었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월평균 용돈이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관계가 있는 주요 변수였다.

표 4. 노인복지관 이용빈도를 결정하는 변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 5회 이상 이용=1)

독립변수	전체(N=177) 로지스틱 계수	여성노인(N=124) 로지스틱 계수	남성노인(N=53) 로지스틱 계수
성별(남성=1)	1.064**	-	-
연령	-.025	-.003	-.084
거주형태(혼자=1)	-.361	-.462	1.062
교육수준	.999**	.935***	1.299**
건강상태	.342	.623**	-.409
월평균 용돈	.189	.094	.649
복지관 이용 만족도 (만족=1)	.145	-.055	-.224
교통수단 (도보/복지관 차량=1)	.631	.560	.530
상수	-2.282	-3.679	3.065

\*\*\* p ≤ .01, \*\* p ≤ .05

### 3.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기간에 따른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기간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이용빈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 장기간(4년 이상) 이용한 노인과 단기간(1년 이하) 이용한 노인간 선택된 변수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t-test, 마지막으로 장기간 이용노인과 단기간 이용노인을 결정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5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녀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이용기간을 설명해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연령과 거주형태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혼자 살지 않고 노인부부끼리만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할수록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빈도를 설명하는 주요변수인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을 설명하는 주요변수에서는 제외되었고, 이용빈도와 이용기간 모두에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뿐이었다. 그러나 성별은 이용빈도의 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여성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 즉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은 남성이었으나(표 2, 참고), 장기간 이용하는 노인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고 연령만이 공히 주요 변수였다.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과 거주형태만이 유의미하였고 남성노인의 경우는 연령만이 주요 변수였다.

표 5.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을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stepwise) 결과

독립변수	전체(N=316)	여성(N=218)	남성(N=98)
	Beta	Beta	Beta
성별(남성=1)	-.163***	-	-
연령	.290***	.250***	.351***
거주형태(혼자=1)	-.147***	-.148**	-.147
교육수준	-.086	-.069	-.139
건강상태	.094	.070	.152
월평균 용돈	.001	.000	.000
복지관 이용 만족도(만족=1)	.010	.018	.001
교통수단(도보/복지관 차량=1)	-.015	-.045	.068
R <sup>2</sup>	.106	.080	.123

\*\*\* p ≤ .01, \*\* p ≤ .05

표 6은 노인복지관 장기간 이용하는 노인과 단기간 이용하는 노인 집단간 변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결과로서 연령, 거주형태와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변수였다. 표 6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주로 최근에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흥미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 이용을 중간에 그만 둔 노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거주형태는 이용기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였지만(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고(표 7), 건강상태는 이용기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아니었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기 이용노인과 단기 이용노인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성별, 건강상태, 용돈, 복지관 이용 만족도와 교통수단은 이용기간에 따른 노인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6.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에 따른 노인집단의 비교(괄호 안은 비율)

변수	주 1회 이하 노인 (N=99)	주 5회 이상 노인 (N=78)	n	Chi-Square	t값
성별				2.912	
남성	25(.61)	15(.39)	41		
여성	48(.45)	58(.55)	106		
연령(평균)	71.64	74.64			3.475***
거주형태				4.361**	
혼자	20(.67)	10(.33)	30		
그 외	53(.45)	64(.55)	117		
교육수준				11.276***	
무학	17(.40)	26(.60)	43		
초등학교	33(.45)	41(.55)	74		
중학교 이상	23(.77)	7(.23)	30		
건강상태				2.245	
건강하지 않음	44(.54)	38(.46)	82		
보통	15(.52)	14(.48)	29		
건강함	14(.39)	22(.61)	36		
월평균 용돈 1)				5.063	
거의 없음	7(.78)	2(.22)	9		
50,000원 이하	14(.39)	22(.61)	36		
50,001원-100,000원 이하	21(.50)	21(.50)	42		
100,001원-150,000원 이하	12(.48)	13(.52)	25		
150,001원-200,000원 이하	11(.58)	8(.42)	19		
그 이상	8(.50)	8(.50)	16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1)				.114	
보통 이하	6(.55)	5(.45)	11		
만족	67(.49)	69(.51)	136		
교통수단				.004	
도보/복지관 차량 이용	44(.49)	45(.51)	89		
대중교통 및 기타 이용	29(.50)	29(.50)	58		

\*\*\*  $p \leq .01$ , \*\*  $p \leq .05$ 

1) 2개의 셀(cell)의 기대도수가 5보다 작아 카이제곱 이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노인복지관을 4년 이상 장기간 이용한 노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간 이용노인과 비교하여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이용기간을 설명해 주는 주요 변수인 성별과 거주형태가 제외되고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로 추가되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장기간 이용한다는 발견은 노인복지관 발전 방향에 중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복지관 이용 초기에는 노인복



지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여 단기간만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거주형태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관을 단기간 이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성노인의 주거형태와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스피어만 계수(Spearman의 rho)가  $-.168(p \leq .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연령과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로서 연령이 많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노인에게는 혼자 사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지가, 남성노인에게는 건강상태가 복지관의 장기간 이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을 결정하는 변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년 이상 이용=1)

독립 변수	전체(N=147) 로지스틱 계수	여성노인(N=106) 로지스틱 계수	남성노인(N=41) 로지스틱 계수
성별(남성=1)	-.821	-	-
연령	.147***	-.103	.350**
거주형태(혼자=1)	-1.258	-1.177**	-2.794
교육수준	-.700**	-.720	-.904
건강상태	.608**	.364	1.849**
월평균 용돈	.073	.105	-.325
복지관 이용 만족도 (만족=1)	-.956	-.419	-2.559
교통수단 (도보/복지관 차량=1)	-.282	-.527	-.068
상수	-9.114	-5.960	-24.162

\*\*\*  $p \leq .01$ , \*\*  $p \leq .05$

## V.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방법과 차별된 노인복지

관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따른 노인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이 우리 나라 중소도시인 천안의 노인복지관 한 곳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한정하였고, 표본크기도 매우 작아 연구 결과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 2차 자료를 이용한 양적 분석으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포함되었던 주요 변수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확률추출방법에 의한 표본을 이용하여 노인복지관 이용기간과 이용빈도에 대한 노인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질적 조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결과 우리 나라 남녀 노인 모두에게 있어서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변수는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성별이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고, 남성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성별로 분류할 때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노인이 노인복지관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남녀노인간의 차이도 발견되어 남성노인에게는 교육수준과 월평균 용돈이 여성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노인복지관의 이용빈도와 관계가 있었다. 남성노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노인보다는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 노인복지관 이용시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는 동년배들과의 식사나 다른 사회적 교류활동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가끔 이용하는 노인과 자주 이용하는 노인으로 분류하였을 때 그들을 결정해 주는 주요 변수 역시 교육수준과 성별이었고 남녀노인간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남성노인에게는 교육수준이 여성노인에게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였다. 기술분석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월평균 용돈이 20만원 보다 많은 노인의 경우 오히려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용돈이 적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노인이 많았고 10만원을 기점으로 반전하여 20만원 이하의 노인은 월평균 용돈이 증가할수록 자주 복지관을 이용하였으나 20만원을 초과하면 복지관을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ㄱ곡선). 이러한 발견은 아마도 월평균 용돈이 20만원 보다 많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노인들의 경우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것 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다른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용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p < .1$ ). 결론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관련 있는 변수는 성별,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이었고, 남성노인에게는 경제적 변수인 용돈이, 여성노인에게는 건강이 이용빈도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노인복지관 이용기간을 설명해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형태로 여성노인이고, 연령이 많고, 배우자까지만 살거나 그 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거할수록 장기간 이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은 남성노인이었으나 장기간 이용하는 노인은 여성노인이었다. 이는 아마도 평균수명과 깊은 관계가 있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남성노인보다는 수적으로 많은 여성노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남성노인들이 이용을 중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관의 이용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분류하여 이를 결정하는 변수를 조사한 기술분석 결과 연령, 거주형태, 교육수준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고,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과 동거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거주형태는 제외되었고 건강상태가 추가로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다. 즉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장기간 이용한다는 발견은 노인복지관 발전 방향에 중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복지관 이용 초기에는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여 단기간만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노인복지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노인이 여성노인과 비교하여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수적으로 많은 여성노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서 인기가 있는 사회교육서비스 프로그램에는 가요, 무용, 건강체조, 에어로빅, 단전호흡, 요가, 문예, 합창 등 주로 여성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은 장기와 바독실 운영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남성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이 지속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단기간 이용하고 있었고, 월평균 용돈이 많은 노인일수록(20만원 이상)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고학력, 고소득 노인층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부 교육수준이 높은 고소득층 노인들과 대부분의 저학력, 저소득층 노인들간의 상호 교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우정과 교류는 '가치동질성(value homophily)'의 문

제, 즉 사회적 신분(사회적 경험)과 사고방식이 비슷한 경우에 제대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Tissue, 1971). 노인복지관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주요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와 같은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고학력, 고소득층 노인을 주고객으로 삼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여가와 교육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칭 유료노인종합복지관을 별도로 국가나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건강상태는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였다. 다시 말하면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고 장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외의 의료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치매나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가 중심의 목적 기능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중산층 이하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료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복지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셔틀버스의 적극적인 운행이 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범수·김동원(1997).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2권 1호: 161-201.
- 나상희·구재관(1998).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0이용노인과 잠재적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2호: 136-158.
- 박재간·모선희·이미애(1998). 수원시 노인복지사업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재간·원영희(199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 방향. 1997년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원영희·모선희(1998). 노인복지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노년학, 18, 2: 64-79.
-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 윤경아(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유성호(1999). 노인대상 교통서비스정책 개발방안.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14호: 239-271.
- 이명자(1999).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춘식(1997).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여가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2권 1호: 131-159.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0). 노인복지정책관련 국민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새천년민주당 노인복지관련 정책.
- Demko, David J.(1979). Utilization, Attrition and the Senior Center.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2), 87-93.
- Ferraro, Kenneth F. & Cobb, Catherine (1987). Participation in Multipurpose Senior Center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6(4), 429-447.
- Krout, John A.; Cutler, Stephen J.; Coward, Raymond T.(1990). Correlate of Senior Center Participation: A National Analysis. *The Gerontologist*, 30, 1, 72-79.
- Krout, John A. (1991). *Senior Center Participation: Findings From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3), 244-257.
- Krout, John A.(1988). The Frequency, Duration, and Stability of Senior Center Attendanc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12(1/2): 3-19.
- Miner, Sonia; Logan, John R.; Spitze, Glenna(1993). Predicting the Frequency of Senior Center Attendance. *The Gerontologist* Vol. 33. No. 5: 650-657.
- Tissue, Thomas. (1971). Social Class and the Senior Citizen Center. *The Gerontologist*, 11, 196-200.